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사야 8:1-8)

본 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에 통지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 그대로 믿고 임마누엘 날개 밑으로 모여야 하는데 유다가 대적인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패망하리라는 하나님의 통고를 받고도 불신하고 대신 앗수르를 의지하다가 그들에게 정복당하게 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통고(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1절)

(1) 하나님은 통고문을 통용문자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통용문자’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합니다.

(2) 통고문의 내용은 ‘마헬살랄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하스바스’란 ‘속히 노략을 당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가 노략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유다가 노략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다를 향해 쳐들어오는 두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다메섹에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가서 이 두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자기네 왕 앞으로 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쁜 소식을 이사야에게 서판에 써서 유다 만민에게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해 증거할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2절).

그래서 이사야는 서판에 그대로 글을 썼고, 우리야와 스가랴가 이를 증거하여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도록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사야 선지자가 둘째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지어 주셨는데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라”(4절)고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는 시기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대로 이사야가 둘째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지은 지 3년만에 이들 두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2. 유다의 불신(5-7절)

원수인 이스라엘과 아람이 몇 해만

지나면 모두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1) 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복을 천천히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천히 질서 있게 임합니다. 사과를 따려면 나무를 심고 어느 정도 자라는 동안 가지를 쳐 주고 농약을 뿌려 주고 거름을 주어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순서가 있게 복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복을 갑자기 한꺼번에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에서 탈선하여 편법을 쓰게 되는 죄악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도 멸망하는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배반하고 편법을 써서라도 복을 받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선전을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만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일은 쥐꼬리만큼 하고 선전은 남산만큼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말없이 자신의 책임에 맘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천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선전만 하고 자신들의 할 일은 하지 않고 갑자기 복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셋째, 천천히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잠시 후에는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잠시 후에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이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딱딱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2)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 기뻐한 불신앙입니다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 베가이며 기뻐한다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들의 무엇을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첫째, 두 나라의 군대를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오는 것 같아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간의 방법은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날개 밑에 무릎 꿇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들의 군대는 훈련을 잘 받은 용맹스러운 군대이지만 유다의 군대는 낮잠이나 자고 술이나 마시며 놀면서 훈련을 받지 못한 군대입니다. 왕은 환난이 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군대에게 훈련을 시켰어야 했는데 약자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느라고 군대를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원수 두 나라가 강한 군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데 유다 왕이 그 군대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부럽다는 말입니다.

둘째, 두 나라가 동맹한 것을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고 있으니 나는 군사 훈련도 못시키고 또 강한 나라와 동맹도 맺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 나라의 군대가 동맹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3) 앗수르와 동맹을 맺은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한 것을 보고 부러워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앗수르에 사자를 보내어 동맹을 맺습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 오기 때문에 유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나라보다 더 강한 앗수르와 동맹하려는 불신앙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불신앙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악한 앗수르와 동맹하여 하나님의 탄식을 산 것입니다.

유다가 앗수르와 동맹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 온 나라 안에 앗수르의 물결(세력)이 점점 넘쳐서 목에까지 미치게 되어 꼼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앞날을 탄식하셨습니다.

3. 임마누엘의 은총(8절)

“임마누엘이여 그의 피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8절)

유다가 하나님이 통고하신 말씀을 불신하여 앗수르의 제앙을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구원자인 임마누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능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믿는 이상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들의 구원자인 임마누엘의 날개 밑에 앉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앙에 처한 유다 백성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면서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기의 책임만 감당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앗수르 군대를 청했다가 아주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오는 것 같아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간의 방법은 절대로 섞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에 무릎 꿇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THE SHUNAMMITE WOMAN

(2 Kings 4:8-37)

Today's well known biblical passage is a part of Elisha's miracle-filled ministry. It reveals the tremendous power of one's faith in the Lord. Just as faith as little as a mustard seed can move a mountain, so too can a genuine faith of an ordinary person bring about the spectacular miracle of life. Moreover, this biblical story teaches us a special lesson regarding the well-being of our soul.

The story begins, "Now there came a day when Elisha passed over to Shunem, where there was a prominent woman, and she persuaded him to eat food. And so it was, as often as he passed by, he turned in there to eat food" (vs. 8). This Shunammite woman is not only prominent but very kind, she cares for God's prophet by providing him with food. Her frequent generosity is a reflection of a true heart. Although she is not yet aware of who Elisha is, she obviously knows that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him.

"She said to her husband, 'Behold now, I perceive that this is a holy man of God passing by us continually'" (vs. 9). Not only is this Shunammite woman kind and generous but here we clearly see that she is also very wise. She is able to recognize that Elisha is not just an ordinary man but a holy man of God. She asks her husband, "Please, let us make a little walled upper chamber and let us set a bed for him there, and a table and a chair and a lampstand; and it shall be, when he comes to us, that he can turn in there" (vs. 10). After becoming aware of Elisha's calling, this special woman desires to provide not only food but shelter as well to help comfort him in his work.

"One day he came there and turned in to the upper chamber and rested. Then he said to Gehazi his servant, 'Call the Shunammite.' And when he had called her, she stood before him. He said to him, 'say now to her, 'Behold, you have been careful for us with all this care; what can I do for you? Would you be spoken for to the king or to the captain of the army?'" And she answered, "I live among my own people" (vss. 11-13). This conversation reveals several things. First, the Shunammite woman cared for not only Elisha but also his servant. Second, that Elisha has a deep heart. The biblical story preceding this one in the Bible displays his aid to a widow (2 Kings 4:1-7). It is clear that he is a man who cannot turn his face away from those in need. As such, his desire was to compensate the Shunammite woman for her careful care. The Shunammite woman declines his offer because she does not need it. It's important to notice that she does not suggest something else but speaks no further.

Not being able to use his influence among the king or captain of the army, Elisha inquired further, "So he said, 'What then is to be done for her?' And Gehazi answered, 'Truly she has no son and her husband is old.' He said, 'Call her.' When he had called her, she stood in the doorway. Then he said, 'At this season next year you shall embrace a son,' and she said, 'No, my lord, O man of God, do not lie to your maidservant'" (vss. 14-16). Elisha places a wonderful blessing upon this Shunammite woman. She expresses shock and disbelief. Her mind cannot fathom the possibility of such a blessing.

"The woman conceived and bore a son at that season the next year, as Elisha had said to her. When the child was grown, the day came that he went out to his father to the reapers. He said to his father, 'My head, my head.' And he said to his servant, 'Carry him to his mother.' When he had taken him and brought him to his mother, he sat on her lap until noon, and then died" (vss. 17-20). Elisha's blessing was true. Sadly, the boy perhaps suffered some type of sunstroke.

"She went up and laid him on the bed of the man of God, and shut the door behind him and went out. Then she called to her husband and said, 'Please send me one of the servants and one of the donkeys, that I may run to the man of God and return.' He said, 'Why will you go to him today? It is neither new moon nor sabbath.' And she said, 'It will be well'" (vss. 21-23). The Shunammite's woman's reactions to her son's death are remarkable. She places her son in Elisha's room because she associates it with holiness. She quickly makes arrangements to



수넬 여인

(열왕기하 4:8-37)

잘 알려진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적을 많이 행한 엘리사의 사역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말해 줍니다. 거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본문은 믿음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수넬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넬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8절). 이 수넬 여인은 귀한 신분의 여인이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음식으로 공대하며 친절히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복되는 이 친절행위는 참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9절). 이 수넬 여인은 친절하고 관대할 뿐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쉼대를 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시이다"(10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소명을 깨닫게 되자 이 특별한 여인은 음식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일하는 도중 편히 쉴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넬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말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11-13절). 이 대화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수넬 여인은 엘리사를 보살폈을 뿐 아니라 그의 사환까지도 보살폈습니다. 둘째, 엘리사는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바로 이전에는 엘리사가 고아를 돕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왕하 4:1-7).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수넬 여인은 왕이나 군대장관에게 원하는 어떠한 개인적인 청원도 엘리사에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무엇을 해주기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왕이나 군대장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녀의 필요를 채워 주고자 한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자 엘리사는 고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14-16절). 엘리사가 수넬 여인에게 아들을 얻도록 축복하자 그 여인은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축복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미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내 머리에 하는 자라 그 아미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아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아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아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17-20절). 엘리사의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미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에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렸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어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21-23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수넬 여인의 반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혔는데 이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엘리사를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한 결문을 그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냈니

reach Elisha. Her husband's questions reveal his lack of complete understanding. Even so, the Shunammite woman's response shows us her true heart, her true belief in the power of God. Her faith is beautifully demonstrated through her actions and words. Most especially in her confident proclamation 'It will be well'.

"Then she saddled a donkey and said to her servant, 'Drive and go forward; do not slow down the pace for me unless I tell you.' So she went and came to the man of God to Mount Carmel. And it came about when the man of God saw her at a distance that he said to Gehazi his servant 'Behold, there is the Shunammite. Please run now to meet her and say to her, 'Is it well with you? Is it well with your husband? Is it well with the child?'" And she answered, "It is well"" (vss. 24-26). Wow! The Shunammite woman rushes to see Elisha and then proclaims that everything is okay. How is this possible? Her son is dead, her husband lacks understanding, and she must be terribly sad, tired, and overwhelmed. Yet, she claims that it is well. Here we uncover the mystery of true faith. Although everything around us may be in chaos;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of life entail (happiness/sadness, peacefulness/sorrow, easy times/difficult times), those with faith in the Lord hav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If we totally trust in God, we will know that His power will secure our soul.

"When she came to the man of God to the hill, she caught hold of his feet. And Gehazi came near to push her away; but the man of God said, 'Let her alone, for her soul is troubled within her; and the Lord has hidden it from me and has not told me'" (vs. 27). The Shunammite woman humbly places herself at the feet of the man of God. She comes to Elisha in the same manner as we come to Jesus for help. God had not revealed her situation to Elisha but Elisha recognized that something was wrong.

"Then she said, 'Did I ask for a son from my lord? Did I not say, 'Do not deceive me'" (vs. 28)? Her first question is not to ask Elisha to heal her son but to determine why this is happening. She reminds Elisha that she didn't ask him for a son but that he freely blessed her with one. "Then he said to Gehazi, 'Gird up your loins and take my staff in your hand, and go your way; if you meet any man, do not salute him, and if anyone salutes you, do not answer him; and lay my staff on the lad's face'" (vs. 29). Elisha gives Gehazi specific instructions on the care and use of his staff to heal the boy.

"The mother of the lad said,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yourself live, I will not leave you.' And he arose and followed her" (vs. 30). The Shunammite woman refused to step out of Elisha's presence. She knew that the power to revive her son was in Elisha. Then Gehazi passed on before them and laid the staff on the lad's face, but there was neither sound nor response. So he returned to meet him and told him, 'The lad has not awakened'" (vs. 31). Elisha's instruction to Gehazi was designed to teach the people that the power to work miracles was not magically inherent in his staff.

"When Elisha came into the house, behold the lad was dead and laid on his bed. So he entered and shut the door behind them both and prayed to the Lord" (vss. 32-33). Elisha privately prayed to God to seek his direction. "And he went up and lay on the child, and put his mouth on his mouth and his eyes on his eyes and his hands on his hands, and he stretched himself on him; and the flesh of the child became warm. Then he returned and walked in the house once back and forth, and went up and stretched himself on him; and the lad sneezed seven times and the lad opened his eyes" (vss. 34-35). Following God's guidance, Elisha experienced warmth from the boy. He obviously became excited at the anticipation of God's workings. Then he got up and walked. When he stretched himself on the boy the second time - it happened - a spectacular miracle of restoring life to one who had been dead for some hours happened.

"He called Gehazi and said, 'Call this Shunammite.' So he called her. And when she came in to him, he said, 'Take up your son.' Then she went in and fell at his feet and bowed herself to the ground, and she took up her son and went out"" (vss. 36-37). She humbly thanked Elisha and the Lord.

Like the little Shunammite woman whose faith depended on Elisha, so too should our church depend on Jesus. When we repent and come to Jesus, we receive peace and assurance of eternal life.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Gen. 18:14)? God's power is almighty. Yes, He raised the shunammite woman's son but more importantly He raised the Lord and will raise us up through His power (1 Cor. 6:14).

Jesus' words show us how His blessings depend upon our faith,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affliction'" (Mark 5:34).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John 3:36). I want all the people of Choong Hyun to understand that their faith does not rest on the wisdom of men but on the power of God (1 Cor. 2:5).

The beautiful hymn that expresses the true meaning of our Christian faith sings out,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n Jesus Christ, we have a very special peace that enables us to know that indeed it is well with our soul!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넬 여인의 답변은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평안이니이다"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넬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나 네 남편이 평안하나 아이가 평안하나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24-26). 수넬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려고 급히 서둘렀고 만난 후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녀의 아들은 죽었고 그녀의 남편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녀 자신은 너무나도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혼돈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삶의 형편이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 순탄할 때나 역경일 때나 막론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 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하는 여호와께서는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27절). 수넬 여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발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오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여인의 처지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엘리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28절). 여인의 첫째 질문은 엘리사에게 그녀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녀 자신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엘리사가 스스로 그녀에게 아들을 얻을 것을 축복했던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29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지팡이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30절). 수넬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되살릴 힘은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31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시한 것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지팡이 자체에 마법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32-33절).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34-35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자 엘리사는 죽었던 소년의 몸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 엘리사는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두번째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자 여러 시간 동안 죽었던 자에게 삶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넬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36-37절). 여인은 겸손하게 엘리사와 여호와께 감사하였습니다.

엘리사를 신뢰하였던 수넬 여인과 같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는 평화와 영생의 화신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 18:14).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넬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며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살리실 것입니다(고전 6:14).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저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기초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고전 2:5).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은 우리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잘 묘사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 편하다'라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평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찬양의 힘은 위대했다”

조 형 수
(집사, 아멘찬양대)

나는 출근 시간이 이른편이다. 이른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아침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허둥거리며 집을 나서면 이번에는 출근길 도로가 나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짜증나는 아침이다. 특별히 지독스럽게 무더웠던 지난 여름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짜증나는 아침이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아멘찬양대원들은 그런 출근길 짜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교회 설립 기념 음악예배 준비를 위해 ‘신앙고백’(Credo Mass) 테이프를 들으며 부족한 연습 시간을 대신하는 출근길이었기 때문이었다.

평소에 나는 순간순간 어떤 생각 속에서 생활하느냐가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왔다. ‘나는 안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힘든 경우를 당하게 되면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나마 조금 남아 있던 자신감마저 앗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신앙고백’의 악보를 받은 날은 솔직히 우리 대원들 대부분이 연주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 어려운 곡을 어떻게...” 연주곡을 바꾸자고 지휘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수철 집사님은 단호하셨다. 모짜르트 특유의 기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면도 있으니 아멘찬양대원들도 충분히 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두려움은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연습을 했고 틈틈이 테이프를 들으며 혹독하게 더웠던 여름날을 ‘신앙고백’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했



다. 그 결과 음악예배는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난 다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릴 때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짜르트의 나이 20세에 작곡된 ‘신앙고백’은 화려하면서도 재기에 넘치는 곡으로 그 당시로는 새로운 시도로 젊은 모짜르트의 삶과 영혼, 그리고 그의 깨끗한 헌신과 기도가 신앙적 촉매가 되었다. 총 6곡으로 합창과 4중창이 어우러져 연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오르간과 함께 연주된 적은 있으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되기는 아멘찬양대가 처음이었다.

대개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이 나오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험한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는 이번 연주를 통해서 넘어지기 도 해보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음을 인정한다.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정신이, 신성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발견하였다.

찬양의 힘은 정말 위대했다.

* 진중세례식에 참석하고 *

논산훈련소
거대한 연병장은 우리의 황금어장김 경 애
(권사, 17교구)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군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터에 논산훈련소에서 진중세례식이 있다 하여 이번에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서라도 꼭 참석하리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차에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목요일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모르더니 금요일에는 폭우까지 동반하지 않았던가. 일기예보에 토요일 오후부터 개인다고 전했지만 걱정이 앞섰다.

“하나님, 젖은 땅바닥에 앉아서 세례를 받는 사병들이 감기라도 들게 되면 주님 영광 가리우게 될까 염려되오니 좋은 일기 주소서.” 기도하며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화창한 날씨를 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교회로 향했다. 9시 조금 지나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군전도회원들은 2대의 버스에 편승하고 찬양대원들도 2대의 버스로 모두 4대가 나란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해서도 교통소통은 원활했으며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산천초목이며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는 들녘의 곡식들을 바라보았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마음 속으로 “풍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해요”라고 속삭였다. 준비해온 간식을 서로 나누며 정다운 환담 속에 어느 사이 12시가 조금 지나자 목적지에 도착했다.

군대교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소개를 받은 후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연병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일행들의 얼굴에는 감격하는 모습이 가득했다.

차에서 내려 연병장 잔디밭에 질서 정연하게 좌정하고 기다리는 사병들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감정을 억제하면서 지정된 찬양대석에 앉아 하늘을 우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였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정복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서 5천명을 배불리 먹이신 장면을 연상케 하였다.

군목의 호령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던 사병들의 우렁찬 합성은 천지를 진동하는 듯했으며 군악대의 합주에 흥분된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마치 천국잔치가 열린 듯한 느낌이었다. 현상민 목사님의 말씀도 평소보다 더욱 은혜스럽게 다가왔으며 근처에 시무하시는 목사님들까지 동원되어 세례식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다.

기념 촬영 후 사병들과 신우회 여군들의 찬양과 율동하는 모습들을 뒤로 하면서 다음 세례식에도 참석하리라 다짐하였다.

서울로 향한 고속도로에 진입할 즈음 구름이 물러들기 시작하면서 맑은 빛방울과 함께 한줄기 소나기가 내렸다. 잠시 후 무지개가 나타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보여 주신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그 순간 또 다른 무지개와 함께 쌍무지개가 되어 일행을 태운 차를 호위하는 듯하였고 차 안에는 온통 감격과 흥분의 장면이 전개되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은혜도 받고 친교도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기에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리라.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독일 육호기 선교사 ◆

청소년 사역 위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며, 특히나 선교위원회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니다. 엊그제 한국을 떠난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군요. 짧은 공백이었지만, 이제는 그 공백이 메워지면서 고향 같은 안정감을 맛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달은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교우들을 심방하느라 바빴고 청소년에 배 인도를 맡게 되어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며 큰 일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 자라난 환경,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다른 청소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언어 선택의 어려움과 감정상의 벽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느껴집니다. 찬송가를 전혀 부르지 못하던 아이들이 지난주에는 큰 소리로 찬송가를 따라 불렀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우물하던 그들의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작은 변화들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답니다.

8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크로아티아에서 조출하게 청소년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와 종교적 문제로 전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곳 사람들을 잘 알고 지내서 뜻하지 않게 여기서 수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해변가는 아드리아해를 가운데 두고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마주 보이는 곳에 자리잡은 휴양지인데 전쟁으로 인하여 민심이 별로 좋지 않고 물

가도 비싼 편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가는 데만 25시간 걸렸지만, 덕분에 크로아티아 지방은 살살이 둘러본 격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 집들이 텅텅 비어 있는 유명 마을 같은 곳, 총탄 자국이 난 집들과 폭탄으로 폐허가 된 곳 등등, TV에서나 보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이곳 어른들은 여기 청소년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형편도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들 명랑하게 웃으며 지냈고 긴 여행이었지만 모두 건강하게 사고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궁금했던 신앙의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어린 영혼들을 상담하며 격려하며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해변에서 수영하고 배구놀이를 하는 등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곳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형제자매임을 가르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친구들임을 느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지도

하며 마음 속으로 많은 갈등도 있었고, 과연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될까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능성을 보여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며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송가 276장(하나님의 진리 등대)을 부르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와 닿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늘 죄송하면서도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섬기시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육호기 선교사

취재수첩

사직하신 분, 청빙되신 분

이번 10월 정기당회를 통해서 부목사, 여전도사 각 세 분이 사직하게 되었다. 장경철 목사(1962. 3. 25생)는 국민대 무역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재학중으로, 분당 한울교회에서 사역해 왔다. 13교구를 지도하게 될 조철수 목사(1963. 5. 10생)는 전주대 경영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후, 서울 대길교회에서 사역해 왔다. 또한 9교구를 지도하게 될 김동하 목사(1962. 5. 21생)는 대한신학대학 신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후, 수원제일교회에서 사역해 왔다. 또한 총신대 역사교육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김영기 전도사(1960. 12. 27생- 유년부 지도),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 1학년에 재학중인 김창중 전도사(1969. 3. 7생-고등부 부지도), 경희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총신대 신대원 2학년에 재학중

인 이종관 전도사(1968. 10. 20생-대학부 부지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총신대 신대원 1학년에 재학중인 조재민 전도사(1973. 6. 5생-대학부 부지도), 그리고 전주대학교 독문학과와 총신대 신교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신대 신대원 1학년에 재학중인 송원석 전도사(1965. 10. 26생-청년1부 부지도) 등이 각각 교육전도사로 청빙되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실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해야 하겠다.

이준경 · 박노철 전도사

14일에 강도사 인허

우리 교회 이준경 전도사(대학부 부지도)와 박노철 전도사(소년부 지도)가 이번 14일(화)에 동서울노회를 통하여 강도사 인허를 받는다. 장소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강현교회(장욱기 목사)이며 시간은 오전 11시이다. 이들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되며,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차병준 목사



조철수 목사



김동하 목사



김창중 전도사



이종관 전도사



송원석 전도사



조재민 전도사



김영기 전도사

충헌게시판

'함께 세우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성도를 기다립니다. 9-12인승 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 교회 '사랑부(정신장애아 부서)'의 지체들 중 방배동 지역에 사는 이들을 교회학교에 등학교시켜주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이 지체들의 등교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이고 하교시간은 낮 12시 30분입니다. '함께 세우는 예수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섬겨 주실 분은 주일에 교육관 1층에 있는 사랑부 교사실(교육관 105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에게서 연약한 지체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충헌의 성도들

매일 새벽 4시 40분이 되면 어김없이 울려나는 찬송소리로 충헌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새벽 이른 시간, 본당에 넓게 자리잡은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서, 주님을 향하여 찬송으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이 기록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들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품고 예수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충헌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동참하여 영광의 예배로 주님을 높이면서 허락을 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영성훈련

14일 저녁 7시 베다니홀

교회의 여러 부서의 일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영성훈련이 이번 14일(화) 저녁 7시에는 안수집사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소는 베다니홀이며 강사는 김성관 담임목사이다. 이번 안수집사회 영성훈련은 지난 9월 23일에 있었던 찬양대부대장, 교회학교부감 영성훈련 및 10월 7일에 있었던 1교구 남성도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편 73편 강해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목사는 이 강해를 통해 '육적인 부요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한편 10월 21일(화) 저녁에는 실업인전도회를 대상으로 영성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루디아증창단 우승

동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에서

지난 10월 7일 동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최한 성가경연대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 소속 루디아증창단(지도 이승순 집사)이 우승을 했다.

사랑의 헌혈에 동참합시다

다음주일(19일) 교회앞마당

매년 봄과 가을에는 우리교회 본당 앞마당에서 사랑의 헌혈이 시행된다. 이번 가을 헌혈은 다음 주일(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게 된다. 매년 400명 전후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헌혈 행사에 이번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 있었던 헌혈 행사에는 370명이 참여한 바 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나, 내 몸에 여분으로 주신 피를 다급한 환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다면, 전해지는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을 좀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교회 주변 대청소

15일 수요일부예배 후 오후1시부터

'15일에 마음 단단히 잡으고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위원회 주최로 오는 15일, 교회주변 대청소를 실시한다. 봉사위원회에서는 이번 대청소의 취지를 '작은 일에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이웃 주민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전도의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하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며, 그날 점심식은 수요일부예배 후 교회에서 제공된다. 청소 참여하는 성도들은 아래 그림에 표시된 대로 교구별로 배정된 지역을 담당하면 된다. 수거된 쓰레기는 교육관 뒷편 소각장으로 모으게 된다. 한편 청소 필요 도구들은 동문경비실에서 지급된다. 오늘날 지역 교회들이 해당 지역 사회와 단절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 이때에, 입술로만이 아닌 섬기는 손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요청된다.

